

광주시민 사망 원인 1위 '암'...기대수명 84.3세

전남대병원 '2024 건강 보고서'

광주시민의 질병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기대수명은 84.3세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은 3일 광주시민의 인구동태와 건강 상태, 의료이용에 관한 통계지표를 정리한 '2024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시 내 보건·의료 관련 현황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결과, 건강행태, 의료이용, 의료자원 등 5개 영역에 대한 44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2023년 기준 광주시 인구 수는 141만 9237명

사망 원인, 폐렴·극단적 선택·심장질환·뇌혈관질환 뒤이어 서구, 흡연율·고위험 음주율 '최고'...광산구 '비만을 최고'

이며, 기대수명(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수명)은 84.3세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기대수명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서울(85.8세), 대전(84.6세), 대구(84.4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차이)는 8.7세로, 대구(9.0세), 부산(9.0세)에 이어 세 번째로 차이가 컸다.

광주시의 2023년 연령표준화 사망률(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해 산출한 사망률)은 10만명 당 30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26.7명 감소한 수치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암(80.6명)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10만명 당 82.6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79.2명으로 가장 적었다.

암 이외에는 폐렴(28.7명), 자살(23.7명), 심장질환(22.6명), 뇌혈관질환(1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년(23.3명) 대비 23.2% 증가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4.3%이며, 광산구가 5.6%로 가장 높고 동구가 1.4%로 가장 낮

았다. 서구는 광주시 5개 자치구 중에서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등 건강 행태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현재흡연율은 18.3%, 남자 현재흡연율은 33.1%,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4.3%다. 이 중 서구는 현재흡연율 19.1%, 남자 현재흡연율 34.5%,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19.9%로 모두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광산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비만율이 높으며(31.9%), 걷기 실천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37.8%)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16.5%에 달했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22.6%)가 가장 비

이 높았다. 남구(20.3%), 북구(17.6%), 서구(17.0%)가 뒤를 이었으며 광산구는 11.6%로 가장 비율이 적었다.

또한 광주시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0.706명에 그쳤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0.588)가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 접근성은 동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의료기관 수는 광주시 전체 160.8곳이며, 동구가 223.9곳으로 가장 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광산구는 127.8곳으로 가장 낮았다.

10만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광주시 전체 2760.1병상으로 집계됐으며 동구는 5783.9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는 2114.5병상으로 가장 적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입춘대길 건양다경

절기상 입춘을 맞은 3일 광주북구노인복지센터 서예 동아리반 회원들과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북구청 민원실에서 입춘방을 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 21일로 연기

절차상 흠결 보완 위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가 21일로 미뤄졌다.

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애초 6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철거 하청업체 현장소장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B(48) 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철거 공사 감리자 C(여·6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안전부장, 공무부장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기록을 확인하다가 절차상 흠결을 발견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재판부는 송부된 항소 기록을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유를 통지받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2년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통지를 받기 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수단체, 15일 광주서 탄핵 반대 집회...경찰 긴장

'극우 논란' 전한길 강사 참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이 광주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보수집회에는 '극우'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날 31일 '세이브 코리아' 측이 "오는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청서를 접수했다.

세이브 코리아는 부산 세계교회포 손현보 목사가 세운 단체로 최근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단체가 신고한 광주 집회 참석 인원은 1000여명이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세이브코리아 측과 집회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

같은 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탄핵 촉구 집회가 미리 신고돼 있어서다.

경찰은 세이브 코리아측에 광주금남공원이나 무등빙딩 앞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날 보수집회에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등 극우 단체의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전씨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 연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장소를 조율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

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 이오젠의) 흡입선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식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울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터별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